

## 화요일

### 부르시는 하나님

#### 출애굽기 3:3-5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쩌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 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 묵상

빛 바랜 흑백 사진처럼 마음에 남아 있는 어릴적 기억 중에는 매일 같이 반복되던 저녁 풍경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잘 익은 콩알들 콩대에서 튀어나오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신나는 놀이를 펼쳤지요. 지는 해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깔려드는 땅거미, 그러면 저녁 연기와 함께 온 동네에 울려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자식들 이름을 불러대던 어머니들의 외침이 지금도 기억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 울림 끝에 전해져 오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모세를 어느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 인근에서 양떼를 먹이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발터 벤야민은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것으로 하찮은 것과 흔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끝에,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자루 끝에, 밥 짓는

여인들의 젖은 손끝에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했던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이들의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줄 3:11)그렇게 떨며 주저하게 되지요.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흙덩이가 강아지똥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을 벗어나면 맨발입니다.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떨기 앞 맨발이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prayer

주님의 말씀 앞에 쉽게 '아멘' 하지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떨기 앞에 맨 발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 묵상

아픔의 시대를 건디게 한 소망의 노래/ 베르디의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오페라 <나부코>는 유대왕국을 멸망시키고 히브리인을 바벨로니아로 강제 이주시킨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열왕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승승 장구하며 주변국들을 점령함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릴 때, 히브리 노예들을 부려 사막에 거대한 계단식 탑을 쌓고 그 위에 꽃과 나무가 우거진 숲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숲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숲이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던 나부코가 딸에게 배반당해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부코는 지난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부코는 왕위에 복귀했고 나중에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G. Verdi, 1813-1901)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3막에 나오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며 해방을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날아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그리운 곳의 언덕에서 편히 쉬고 싶어라.' 귀엣말로 속삭이듯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악곡이 인상적입니다. 이 노래는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이탈리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들은 이 곡을 독립운동가처럼 부르며 평화와 통일을 꿈꿨습니다. 지금도 제 2의 국가로 애창하면서 오페라 공연 시, 합창으로는 유일하게 앙코르를 청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세계는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아픔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19로 인류의 유대감마저 위협받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 지나가는 간이역이라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돌아보면 매해 고난주간을 별 감흥없이 지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주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떠올리며 스스로 앙코르를 청해봅니다. 그 옛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노래했을 히브리인의 감성대로 말입니다.